전남 사회적기업 수익·공익 모두 성과

전남네트워크, 목포시와 17억 판매 계약
일자리 창출·특화상품·협력으로 성장

전남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으로 인식됐던 사회적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특화된 상품과 협력으로 명실상부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는 13일 "최근 목포시에 이 지역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등을 판매·제공하는 협약을 맺어 17억원가량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단일 지자체를 상대로 이처럼 많은 금액의 물품을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의 모임인 이 단체는 지난 1월 창립돼 마케팅과 판매, 시장 개척 등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네트워크는 목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목포교육지원청, 초등학교(31개교), 중학교(16개교)를 대상으로 구매·알선과 판로지원 등을 약속받았다.

또 목포시는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본청 현관로비에 9개 업체, 50여개 품목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앞서 전남네트워크는 신세계백화점(경기점)에서 '아름다운 나눔장터'를 열어 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네트워크 창립과 함께 지역 내 사회적기업 108곳(고용노동부 인증 29곳·전남도 예비사회적기업 79곳)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요구 사항 등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년에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세미나와 국내외 성공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이 활발한 이탈리아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청에 지역 내 협동조합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남네트워크 김태현 사무국장은 "지역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에게 품평을 받는 등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착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착공식이 13일 오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내 LH홍보관 광장에서 열렸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참석자들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희호 여사 오늘 광주 방문

김근태 사진전·김대중 평화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사진〉 여사가 14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여사는 이날 오후 3시 한반도 재단 주관으로 금남로 전일빌딩 옆 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보고 싶다 민주야, 그립다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 사진전'을 관람한다.

이 여사는 이어 오후 4시30분 화순 도곡온천 단지 내 김대중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기 김대중 민주평화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이 여사의 광주 방문은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동교동계 일부 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이 여사 측은 13일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유지에 대해 명확하고 의미 있는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의 광주 방문에는 윤철구 김대중 평화센터 사무총장, 최경환 공보실장, 박한수 부실장이 수행한다. /최권일기자 cki@

부재자 투표 첫날 투표율 60.9%

오늘 오후 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투표율이 6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날 일반 부재자 투표를 한 결과 대상자 97만3430명 가운데 59만3141명(60.9%)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07년 17대 대선 때 첫날 투표율 61%와 비슷한 것이다. 당시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73만1971명이었으며 첫날 투표자 수는 44만6604명이었다.

이번 대선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108만5607명이지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에는 거소투표 대상자 10만6197명과 선상투표 대상자 7060명이 제외된다.

일반 부재자투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뒤 종료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기간 연장

전남도 관련지침 개정… 위기가구 혜택 확대

저소득층의 가장 등이 사망하거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금 제도가 제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2일자 1면〉과 관련, 전남도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 및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지침은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과 요청일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학비, 사회보험료,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부채상환액 등을 금융재산 공제범위로 확대 ▲지원기간 현실화를 위해 1개월 지원원칙을 3개월로 변경 ▲의료지원 본인부담제 폐지 및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장·군수가 단수, 단가스, 단전,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많은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확보한 긴급지원금 예산 48억여원 중 지난 11월말 현재 30억여원만 썼고, 광주시도 33억5800만원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29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 선거법 위헌소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디어와 언론인의 개념이 나날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정보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에서 정한 언론인의 개인 자격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을 13일 제청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보도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개인 선거운동까지 막는 것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면 '재개발 아파트'서 계속

지난 2008년 1월 재개발 인가를 받은 풍향2구역은 급격한 부동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해 말 아파트 평형 하향변경 등으로 사업성을 갖춘 뒤 금호산업(주)과 계약을 체결, 2013년 5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학동3구역도 147~164㎡(50~60평) 305세대를 취소하고, 내년 5월 19~45평대 아파트를 짓는다. 학동3구역은 아파트 세대수도 1305세대에서 1410세대로 늘었다.

문화동각화구역은 이르면 내년 3월 시화문화마을 옆 3만5099㎡ 부지에 60㎡이하 253세대와 60~85㎡ 463세대 등 716세대를 신축한다. 이는 애초 85~125㎡ 이상 대형평형 98세대를 포함한 670세대를 짓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광주·전남 18대 대선 선거법 위반 30건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 12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건수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이지만,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경우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18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선관위는 고발 3건·수사의뢰 1건·경고 10건의 조치를 했으며, 전남은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9건, 이첩 1건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관급공사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효과 봤다

임금지급 지연·체불 문제 크게 줄어

전남도가 관급공사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무비 전용계좌는 임금 지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막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회사)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해 강진, 여수, 순천 등지의 관급 공사 현장에서 16건 3억3000만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도 방옥길 회계과장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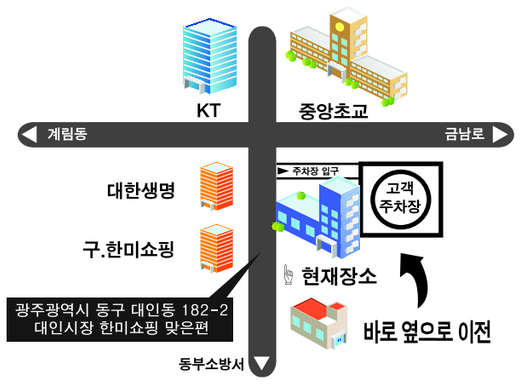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곰탕의 참맛
정성을 다하여 우려낸 육수
정갈한 밑반찬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진짜곰탕 (대형 주차장 완비)
소쇄원 주차장 오시는 길
담양 남면 소쇄원 주차장 70m전방 우회전
소쇄원 진짜곰탕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제8회 모범시민·단체대상 수상자 공모
(개인·단체 : 질서·친절·청결부문)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서·친절·청결부분에 공로가 크신 개인과 단체를 표창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다 음 -

■ 접수마감 :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5시까지
■ 접 수 처 :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실
■ 구비서류 및 양식 : http:www.gjngo.kr//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사항
■ 기타문의 : 062-227-0402, 010-2627-4702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